

學校法人 城西大學

JOSAI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Art and Science (JICPAS)

學校法人 城西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03-6238-1300
http://www.josai.jp/

Newsletter

학교법인 조사이대학 40주년기념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개설기념 특집호
國 際 交 流 版

Josai University Corporation
3-26 Kioi-cho, Chiyoda-ku, Tokyo ☎03-6238-1300 http://www.josai.jp/

No. 1

學校法人 城西大學 創立40周年 記念 祝賀會

2005년 4월 26일 (화)
호텔 오쿠라동경 「아케보노의 방」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설립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축하회가 4월 26일 (화) 에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축하회장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교 (UCR) 으로부터 데이빗 프로스트님, 카모손 컬리지로부터 돈 사버런드 디렉터, 데니스 오카다 전 디렉터의 2명, 카트만두대학교로부터 슈레스 라지 샤라마 부학장님, 동서대학교에서는 장성만 이사장님, 박동순 총장님, 김대식 교수님 3명, 대원공과대학교 외국어학원에서는 社 鳳剛 원장님, 연변대학교로부터는 金 炳珉 학장님, 대만 眞理대학교에서는 葉 能哲 학장님 (순위부동) 과 세계 각국의 자매제휴교로부터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다.

이 축하회가 거행되기 전날인 25일에는 조사이대학교와 함께 조사이국제대학교의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님 주최로 저녁 만찬회가 열렸다. 온화한 분위기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 지는등, 다음날의 행사를 앞둔 축하회의 순조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기념 축하회 당일엔 동경 오쿠라호텔 「아케보노:曙」의 방이라는 접견실에서 많은 하객이 모여진 가운데 자매제휴교로부터 내빈객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하회의 막이 열렸다. 그런 후, 카모손 컬리지의 돈 사버런드 디렉터로부터 따뜻한 마음의 축하 메시지의 스피치를 받아, 축하회에 화려한 꽃을 장식해 놓은 듯 했다. 또, 眞理대학교의 葉 能哲 학장님의 친필에 의한 「城」와 「西」로 시작되는 서예의 족자도, 그의 뛰어난 붓 솜씨에 대회장으로부터

學校法人 城西大學 創立40周年記念祝賀會



는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회가 끝날 무렵, 동서대학교의 장성만 이사장님은 일본어 축사를 해 주셨는데,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와 각 자매제휴교와의 앞으로의 발전과 한층 더 나은 친교를 깊이 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충실한 축하의 자리가 된 40주년 기념 축하회는 무사히 막을 내렸다.

이 자리를 빌어 참가해 주신 자매제휴교의 대표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일차세대학술FORUM

2005년 6월 25일 (토), 26일 (일)

한국 부산, 동서대학교

인솔: 조사이대학교 대학교원 경영학연구과 연구과장, 경영학부 교수 大島 卓

한일차세대학술FORUM은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발표와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양국이 이것들의 분야에 있어서 연구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 되어지고 있다.

한일차세대학술FORUM은 이번에 2회가 되며, 2005년 6월 25일, 26일의 일정으로 국제학술대회가 한국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본교의 대학교원생 6명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대학교원생 300명이 참가했다.

발표형식으로 테마에 의해 크게 9분과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서 더 나누어 8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은 발표자 1명과 토론자 8명으로 구성되어서 300분간의 시간제약을 두고, 발표자의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 테마에 대해서, 그룹으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교의 참가자 가운데, 1명이 발표자, 3명이 토론자, 2명은 일반참가자로서 대회에 참가했다. (제1회는 2명이 참가하고 발표자 1명, 토론자 1명)

25일은 국제학술대회와 리셉션이 거행되었고 26일은

조사여행이 실시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발표자가 되는 학생수를 양국에서 거의 동수로 하고 언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장해를 해소하기 위해, 통역에 만전을 기하는등 상세한 배려가 있었다. 그 밖에도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양국의 학생끼리의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고안이 쓰여졌다. 그로 인해 본교의 참가자의 보고에서는 연구분야의 지식을 깊게한 것 뿐만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감상이 눈에 띄었다.

한일차세대학술FORUM은 제1회와 제2회 모두 동서대학교가 호스트로서 운영과 대회장 제공을 해왔다. 내년의 3회는 일본에서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제부터 한일의 대학교원생의 교류활동은 점점 활발히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중에 본교로써도 양국의 연구자가 좀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인턴십 in 한국

2005년 9월 7일 (수) ~ 9월 13일 (화)

한국 서울

인솔: 조사이국제대학교 어학교육센터 조교수 林 千賀

본교에서는 국제교류의 기회가 대단히 많아서 캠퍼스내 뿐 아니라, 캠퍼스외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문화교류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 첫번째로,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인턴십·프로그램」이 있다.

2005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7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에 인문학부의 학생 4명이 참가했다. 이번에는 서울시내의 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와 아게하일본전문아카데미에 있어서, 일본문화의 소개 및 문화교류와 일본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서초고등학교 정 교장선생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4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교류를 체험하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 그 일부분을 소개하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일본문화 소개를 통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도모했다.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

미국 스페르만 컬리지 서머 스쿨

2005년 5월 15일 (일) ~ 6월 11일 (토)
 쥘바현 토가네시 城西國際大學

5월 15일, 금년에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부터 서머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페르만 컬리지의 학생 14명 (남자 4명, 여자 10명) 이 방일했다. 4주일에 달하는 체류기간중, 조사이국제대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는 물론이고, 소림사권법이나 창법, 다도, 꽃꽂지 등의 다양한 일본문화에 관계되는 활동과 강의에 참가해 일본의 이해와 지식을 깊게 했다.



올해의 새로운 시도로 주말에 홈스테이를 실시했다. 미리 준비된 교원숙소를 이용해서 일본 가정에서의 매너 실제수업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일본어와 일본 특유의 관습에 어리둥절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월요일에는 만족한 웃는 얼굴로 모두들 「재미있었다!」라고 일본어로 감상을 말했다.



이 서머 프로그램은 일본어능력의 향상과 일본의 전



통, 문화, 지식을 깊게 하는 일이 목표로 되어 있으나, 미국문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황해 하면서도 새로운 발견과 이문화교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는 가라고 생각된다.

여러가지 추억과 신중한 체험을 선물로, 6월 11일에 귀국의 길에 올랐다.



중국 아카시아 간담회 · 대련이공대학교 방문

2005년 6월 7일 (화) ~ 6월 10일 (금)
 중국 대련

조사이국제대학교 부학장 : 이시다 마수미
 조사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니이타 미쯔시게

6월 7일 ~ 10일의 4일간, 제 15회 중일 아카시아 간담회의 출발과 대련이공대학교와의 제휴교섭을 목적으로 본교의 村井 隆 고문 (대련시 명예시민), 조사이국제대학교 石田 益実 부학장님, 조사이대학교 경제학부의 新田 光重 교수님이 중국 대련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도착한 후, 대련시의 제 16회 「캐논컵」 일본어번문대회를 참관하였다. 대련시의 일본어 인구는 10만명 정도로, 시내의 17개 대학교에서는 전부 일본어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일본어를 가르키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았다고 한다. 동대회에서는 일본어전공의 대학교생 2,293명을 중심으로 약 3,000명이 엔트리하고 있어서 대련시에서의 일본어 학습열이 뜨거운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8일은 중일 아카시아 간담회에 출석했다. 동 간담회는 1989년의 천안문 사건후, 중일관계의 조기회복을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캐논이나 도시바를 시작으로 대련시에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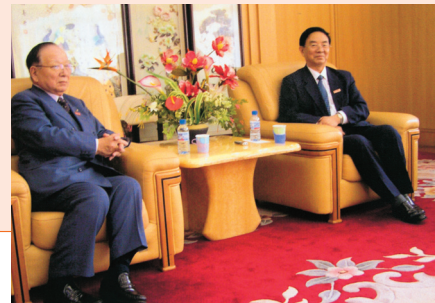


했던 일본기업의 대표와 대련시 정부와의 간담회이다. 금년도에는 일본측 강연자로 참가하고, 夏春 玉東北財經대학교 부교장과 新田 교수님이 아카데미즘의 측

면으로부터 대련시에 정책제언을 하는 형태로 실시되었다.

新田 교수님의 강연은 「신대련 경제권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터 지역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夏 德仁 대련시 시장은 東北財經대학교 교장 (학장) 을 역임하시고 시장에 취임하신 경제학자로서 新田 교수님의 강연 내용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셨다. 또, 동석하신 東北財經대학교 부교장으로부터 동 대학교와의 제휴에 대해서 오퍼를 받았다.

9일은 대련이공대학교를 방문하고 林 安西 학장님과 社 鳳剛 외국어학원 원장을 면회하고, 대련이공대학교의 근황과 제휴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후, 외국어학원 일본어학부의 학생 약 60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 「일본의 기업자 정책」을 실시했다. 준비한 강연 원고는 읽지 않고 애드립으로 학생을 지명해서 질문해 보면, 일본어로 명석한 대답이 돌아왔다. 동 대학교학생의 일본어 능력은 대단히 높은 것을 실감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연종료 후, 사 외국어학원 원장과 본교와의 교육, 학술교류에 대해서 간담했다. 그 중에서 주로 교환유학, 인턴십, e러닝교재의 교환을 포함한 구체적 제휴안을 검토하는 취지를 확인했다.





시에틀에서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스타박스의 1호점과 세계 제일의 유명한 생선 도매상이 되려고 종업원이 일치 단결해, 꿈을 실현시켰던 파이쿠 플레이스 피슈 마켓에 가서 활기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그 외에도, 호텔 연수료써 홀리데이인과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를 견학하고 본고장의 쇼핑센터와 아울렛몰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쇼핑도 하고 왔다.

방문한 곳에는 기업 뿐만아니라 사법과 행정의 현장에도 미쳤다. 전통과 장엄함이 위엄을 자아내는 리버사이드의 주 고등재판소에서는 실제의 법정을 견학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재판관이 직접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장소를 리버사이드 시청의 의사당으로 이동해, 거기에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었던 것은 UCR의 정치학 교수이기도 한 러브레찌 시장님이였다. 시장님은 우리들에게 행정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시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험을 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로스엔젤러스의 리틀토쿄에 있는 일본계 어메리칸 박물관에서는 고향을 멀리 하고 미국에서 살아 나왔던 일본계 어메리칸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일본계 어메리칸인에 있어서 일본도 미국도 조국이다. 그 조국이 전쟁을 시작했던 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전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 여러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국제화가 불려지고 있는 현재, 일본인으로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였다.

모론고 인디언 리저베이션 (어메리카 인디언 보유지) 에도 가서 인디언의 문화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인디언은 자신보다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고 소중히 여긴다. 부모나 자연에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

고 있습니다.」, 「인디언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배자의 목을 물어 뜯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늑대와 함께입니다. 늑대는 인간의 가족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들에게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엿볼수 있었다.

그 밖에도 산펜카포스트라노 전도소를 방문해 캘리포니아의 역사를 돌아보고 캘리포니아주의 아이덴티티를 알기회를 얻었다.

UCR에서의 강의도 의의있는 것이였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고객만족을 획득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등, 일본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훌륭한 강의였다.

매우 빠빠한 스케줄이었지만, 레크레이션도 빠뜨릴 수 없었다. 비버리힐즈나 로테오 드라이브에서는 고급 양품점이 들어서 있는 거리를 산책하기도 하고, 비치에서는 바다에서 노는것 뿐만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바스켓볼로 교류하기도 하고, 레스토랑등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메뉴에 놀라기도 한, 충실한 시간이 되었다.

학생에게는 홈스테이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송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이 캘리포니아대학교로부터 수여되었다. 학생들은 매우 감격하고 있었다.

미국 비즈니스 인 인턴십은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하고 사회인 대학교원생도 참가하는 등, 질적, 내용 둘다 매력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왔다. 장래, 미국으로 유학을 고려중인 학생, 취직 전에 세계의 기업을 보아 놓으려는 학생, 또는 알차고 최저의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부디 참가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부터 학습 열심히 할게요

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타국을 알기 전에 먼저 자국의 문화를 살펴보고 인식하는 일이 국제인의 육성에 있어서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사진 강의로 일본의 어떤 문화를 소개할 것인가를 과제로 내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선택해 소개할 일본문화의 테마는 「장도의 소개」, 「기모노의 입는 방식」, 「일본의 오래된 장난감의 소개 (후쿠와라이등의 전통놀이)」 등 이었다. 또, 소개할 때에도 간단한 일본어만으로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모조지에 써서, 알기쉽게 하기도 하고 제스처를 써어서 함으로써, 보기에도 알기쉽게 「체험참가형」의 문화소개가 이루어졌다.



고등학교에서 장도의 데모 스트레이션 (코테_쯔!, 쯔키_쯔!, 스네_쯔! 등의 구호로 함께 연습)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호평이었고, 적극적으로 본교의 학생이 준비한 테마에 참가해서 많은 질문도 나왔다. 3학교의 고등학교를 돌고, 전체 6시간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연수의 후반에는 본교의 학생들은 「알기쉬운 일본어」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조사이국제대학교의 캠퍼스 라이프를 소개했다

그 밖에도 본교 학생주체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서의 교류와, 아게하일본어전문아카데미에서의 일본어 학습자들과의 교류회를 도모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체험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초급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로 말할 때는 어휘나 문법 항목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그점을 깨달았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행했다.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어 학습자도 말할 때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는 사용할 수 없다. 일본어 학습자가 알기쉽게 어휘나 문법을 조절해서 의사소통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포리너 토크」라고 칭하지만, 외국인과의 회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엔 참가한 학생들은 7일간의 연수를 통해 그것을 깨달아, 어느정도의 어휘나 문법이라면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이해했다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상의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로써도 상당히 결실이 있는 연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고교생에게 유카타를 입는 방법을 가르쳤다.



다도교실에서 전원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도와 그 작법을 배웠다.

미국 비즈니스·인턴십

2005년 9월 7일 (수) ~ 9월 21일 (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워싱턴주 시애틀

인속 : 조사이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 교수 龍 慶昭

「한번이라도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 「미국 대학교의 수업은 어떤 것인가 체험해 보고 싶다」, 「장래를 위해서 미국의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봐두고 싶다」, 「미국에 가는길에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시애틀 관광도 했으면」라는 개인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욕심의 희망을 한번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조사이대학교와 조사이국제대학교에서 실현하고 있는 미국 비즈니스 인턴십이다.



15일간의 일정 가운데는 미국의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오전중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교 (UCR)



에서의 강의, 오후는 기업방문, 토요일에는 버스투어와 자유시간, 마지막에는 네바다대학교나 라스베가스시애틀에서의 연수생들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대기업 슈퍼마켓인 Ralphs 의 물류센터와 실제의 점포, 위생·청소용품의 동족회사 Waxie, 일렉트로닉 기타의 명문 Fender 등의 기업을 방문하고 간부경영자에 의한 강의와 활발한 질문응답, 그리고 그 후의 각 기업내부와 공장견학등이 이루어 졌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미국 기업의 생생한 모습은 참가한 학생들로써는 무척 익사이팅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스베가스 상공회의소에서는 여성 이사장님이 라스베가스시 발전의 특수성과 리스크 관리등에 대하여 흥미 깊게 말씀을 해주셨다.

대만 眞理대학교 설립 40주년 기념 식전 출석

2005년 11월 5일 (토)
대만 淡水/麻豆 眞理대학교

조사이국제대학교 부학장 : 宇野 正雄



葉能哲 眞理대학교 학장

본교 자매교인 대만 眞理대학교는 금년으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식전이 11월 5일에 거행되었다.

본교에서는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상임이사이고 조사이국제대학교 부학장이신 우노 마사오 (宇野 政雄) 님이 출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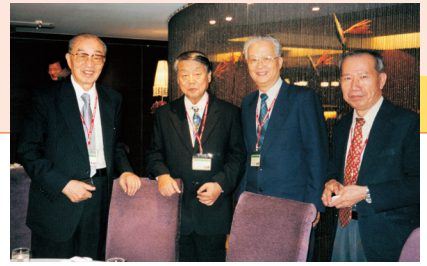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님의 축전을 葉能哲 眞理대학교 학장님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동 대학교 자매교의 내빈과 함께 식전에 참석했다.

식전은 眞理대학교의 麻豆 캠퍼스에서 거행되었고 그리

스도 대학교답게 캠퍼스 내에 있는 예배당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그런 후, 100명 이상의 학생이 연주하는 기념 콘서트가 열렸고 학생의 부모나 지역 주민들도 참가해 즐거운 1시간이 되었다. 콘서트 후에 열렸던 저녁 식사회에는 1,000명 정도의 내빈이 모여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의 방문 기간중에 眞理대학교로부터 본교에 교환유학생으로 재학했던 학생들도 만났수 있었는데 본교에서의 즐거운 유학생들의 추억이야기가 그칠 줄을 몰랐다.



葉能哲 학장 (좌측으로부터 2번째)와 우노 부학장 (맨좌측)



기념 콘서트의 모습

淡江대학교 설립 55주년 기념 식전

2005년 11월 7일 (월), 8일 (화)
대만 타이베이 淡江대학교

조사이대학교 부학장 : 森本 雍憲

2005년 11월 7일, 8일, 대만의 타이베이시에 있는 淡江대학교 설립 55주년 기념식전이 거행되어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님의 명의로써 조사이대학교의 森本 雍憲 부학장님이 출석하셨다.

일련의 기념식전에 이어서 11월 7일 저녁때에 대만의 社正勝 교육부장 주최의 만찬회가 淡江대학교 설립자 張建邦 박사님, 張家宜 학장님을 비롯해, 해외로 부터 초대자 약 50명의 출석하에 개최되었다. 출석자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津田塾대학교장 내외분, 京都橘대학교장, 駒沢대학교 학장 내외분, 川崎의 국어대학교 이사장, 電氣通信대학교 교수의 모습도 보였고 林文通 教育國際文教 処処長과 陳山龍 淡江대학교 응용일본어



森本 부학장과 淡江대학교 유학생

교수였다.

이 만찬회에서는 馬朝剛, 淡江대학교 학술담당 부학장, 陳惠美 淡江대학교 영문계 부교수, 彭春陽 淡江대학교 일본어문학과 부교수와도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

만찬회가 끝난 후, 張建邦 박사님과 張家宜 학장님께 축사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미즈타 이사장님의 친서와 축하 선물을 드렸다. 대단히 감격한 모습이었고 미즈타 이사장님에의 답례의 말씀을 받았다.

8일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전에 출석했던 해외의 내빈에 의한 陳水扁 총통에의 경의를 표하기 위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환영의 인사말과 陳 총통을 둘러싼 기념촬영이 있었다. 그런 후에 식전 참가자와의 점심 식사회가 있었고 점심 식사후에 산회되었다.

같은 날 오후, 淡江대학교의 林雲山 전 학장님을 방문했다. 林 전 학장님은 본교와의 교류에 대단한 공헌을 하셨던 분으로, 오랜만에 본교의 방문을 받은 것에 대해 심혼의 관



張家宜 학장과 森本 부학장

러일교육교류회 개최

— 러시아의 대학교 학장과의 교육 교류 —

2005년 9월 21일 (수)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동경 기오이쥬 캠퍼스

2005년 9월 21일 (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러시아의 대학교 학장, 총 26명이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동경 기오이쥬 캠퍼스를 방문하여 조사이대학교, 조사이국제대학교 교사들의 교육교류회를 가졌다.

먼저, 본 법인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많은 러시아의 여러 대학교 학장님을 맞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솔직한 의견교환의 장소로, 이제부터 양국과 함께 저희 대학교와의 교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환영인사를 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러시아 교육대표단의 단장인 Modern Academy for the Humanities 미카엘 카르펜코 학장님으로부터 「오늘은 기분 좋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이어서 원격수업, 그리고 e러닝에 대해 흥미가 있는 데, 이곳의 대학교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인사 말씀이 있었다.

또, 오늘은 솔직한 의견교환의 장소로, 이제부터 양국과 함께 저희 대학교와의 교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환영인사를 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러시아 교육대표단의 단장인 Modern Academy for the Humanities 미카엘 카르펜코 학장님으로부터 「오늘은 기분 좋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이어서 원격수업, 그리고 e러닝에 대해 흥미가 있는 데, 이곳의 대학교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인사 말씀이 있었다.

그런 후, 전 러시아 대사 都甲岳洋님이 러일교류의 역사를 읽어 가면서, 큰 시점에서의 교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서로의 소개가 끝나고 곧이어 교육교류회가 열려, 조사이대학교와 조사이국제대학교와의 교류나 제휴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넵을 활용한 학위취득이나, 원격 수업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계속되었다.

특히, 러시아측의 흥미가 높았던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캠퍼스 견학회에서 기오이쥬 캠퍼스와 조사이국제대학교가 함께한 수업 모습을 체험해 주었고, 러시아분들은 서로가 그것의 사용의 편리함과 화상의 선명함, 음성의 깨끗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꼭 러시아에서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감상을 말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대범하고 느긋함과 명량한 성격의 국민성을 가진 러시아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대련이공대학교로부터 총장 내학

2005년 10월 1일 (토)

학교법인 조사이대학교 동경 기오이쥬 캠퍼스

10월 1일 (토), 동경 기오이쥬 캠퍼스에 중국 대련시에 소재한 대련이공대학교 총장님이 내학 하셨다.

내학하신 분은 대련이공대학교 공무위원회 주임 겸 동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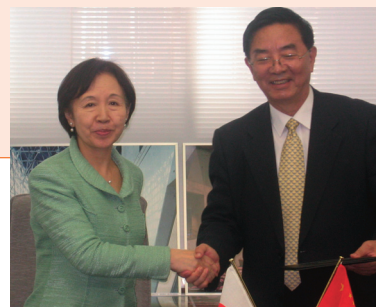


학교 총장님 이신 林 安西님과 외국어학부의 社 鳳剛 교수님 두분이셨다.

동 대학교는 중국 굴지의 이공계 종합대학교로 대련 명예시민으로 계신 村井 隆 선생님 (중일협회고문 및 본교 고문) 의 주선으로 이번 방문이 이루어 졌다.

이번 방문에는 동 대학교와 본교가 교환유학생, 편입생, 단기프로그램 및 연구자 교환등을 주축으로 한 정식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서로 확인한 「의향서」 교환이 이루어 졌다.

앞으로 양 대학교에 있어서 학술 협정 체결을 향한 활발한 조절이 진행될 예정이다.



團方式(약소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금융기관 전체의 존속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본의 금융행정 시스템)은 통용하지 않게 되었다. 중앙교육심사회는 『일본 고등교육의 장래성』(2005년 1월 28일)에서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고등교육계획과 각종 규제」의 시대로부터 「장래성의 제시와 정책유도」의 시대로 이동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 그 결과 대학교 경영 체제가 혁신된다.

국립대학교의 독립 행정 법인화가 그 증거이다. 사립대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기책임과 교육효과의 평가이다. 사립대학교가 구폐를 버리고, 근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대학교 경영에 책임을 지고, 기동적으로 의사결정이 될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저마다 개성을 가진, 자기 스스로 지혜로써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 프로의 매니지먼트에 의한 대학교 경영이 주류로 될 것이다.

4. 그 결과, 학년별 커리큘럼 제도가 혁신된다.

해의 자매대학교와의 교환유학이나 단위호환, 학위인정을 하고 있으나, 단위의 「디포지트 제도」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다. e러닝이 질과 양적으로 충실해 생애교육으로 중시될 것이다. 특히, 사회인에 있어서 스텝업이 되는 전문직의 자격취득강좌에 인기가 모여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4년생 대학교는 공허해서 효률이 떨어지게 된다.

우수한 학생을 단기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일찍 사회에 활약하게 하는 편이 국적이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는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일본은 지금 불황기에 있는 것이 아닌 전환기에 있다. 메이지유신과 전후의 사회혁신을 잘 해결해 나온 것과 같이, 일본은 반드시 제3의 소셜이노베이션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예언하고 있다. 일본의 진가를 발휘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 5년은 계속 될 것이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로 부터의 교환유학생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로부터 3명의 여자 학생이 도착한것은 9월말이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는 국제교류학과장 아마데오 알보레다 교수의 출신교이고, 교환유학생은 모두 비즈니스전공의 3년생이다.

도착한 다음날에, 바로 일본인 학생(국제교류학과1년생)이 환영회를 열어 주었다. 코무카이 선생님이 담당하는 「영어집중특훈 프로그램」의 학생 28명이 종이접기를 함께 하기도 했다. 3명의 감상은 「JIU의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so much fun! 무척 즐거웠다!」

3명의 유학목적은 일본어습득이 제1이고, 제2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JIU에 와있는 교환유학생은 거의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등의 한자권으로부터 왔고, 주로 별과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의 3명과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대학교로 부터온 1명은 비한자권 출신자이기 때문에, 10타임의 일본어특별 클래스가 편성되었다. 어학교육센터의 하야시 찌가 선생님이, 하라 야수에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일본어를 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아야베 선생님이), 국제관계론(사마다 선생님이), 출판문화론(학과장) 등, 영어로한 수업도 이수하고 있다. 필리핀의 대학은 모두가 영어로 수업이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영어운용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일본문화체험 프로그램」담당의 나스 선생님은 매회 제출되는 레포트의 우수한 영어 문장실력에 감탄하고 있다.



마닐라로부터의 교환유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환유학생을 위한 일본문화체험특별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프로젝트교육의 하나로써 실시되고 있다. 전술한 「영어집중특별 프로그램」과의 공동개최 3회도 포함해, 전부 10회의 수업이 있어, 그의 내용은 이하와 같이 되었다.

- 제1회: 「종이접기 교류회」(영어집중특별 프로그램과의 합동)
- 제2회: 카라쓰야키 전시회 견학, 차석, 일본요리(달보기의 점심)
- 제3회: 「와노 히비키」죽세공, 보자기등의 전시회, 일본자수공방 견학, 체험강좌 「돈보다마」
- 제4회: 일본민요, 민속무용전국대회(일본무도관), 동경견학
- 제5회: 도라&미다라시 파티(영어집중특별 프로그램과의 합동)
- 제6회: 차실건축, 정원, 옛날집 견학, 차석 체험
- 제7회: 꽃꽂이 교실(경영정보학부의 시마자키 선생님과)
- 제8회: 핀, 서, 중, 대, 한, 일 대항 숨은 장기대회(영어집중특별 프로그램, LL기초영어와의 합동)
- 제9회: 분락크감상 교실(국립소극장)
- 제10회: 스모 하쓰바소



계에 있는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님, 미즈타 세이코 명예 이사장님을 시작으로 조사이대학교의 옛날 추억을 정겹게 말씀하셨다.



대학교 학내를 안내해 주셨을 때에 林 전 학장님으로부터 기회가 있으면 부디 조사이대학교를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다. 꼭 오시기를 권유하고 작별 인사를 고하였지만, 버스 정거장까지 우리들을 안내하시고 발차할 때까지 배웅해

주셔서 석별의 정과 같은 운치가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밤에는 타이베이 시내에서 조사이국제대학교, 조사이대학교에 유학해 있던 동창생 8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역의 학생이 2명 있었지만, 6명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써 활약해, 본교가 완수한 역할의 크기를 실감했다. 다만 조사이교류회와 같은 졸업생의 네트워크 만들기에 대한 말이 나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할 것을 실감했다.

* 조사이대학교, 조사이국제대학교는 1994년에 淡江대학교와의 일문학계 학생의 유학 파견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어 학생의 상호 파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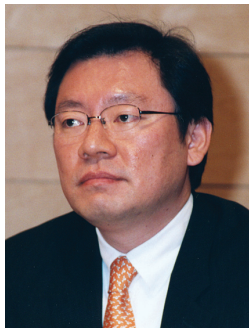
21세기 아시아와 일본의 대학교와 인재개발

2005년 2월 14일 (월) 오후 1시40분~4시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B1F 홀

- 패널리스트 : 동서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장 제국
- 패널리스트 : 龍華科技대학교 관리학부 교수, 中華中小企業研究發展學會 이사장 黃深勳 (Huang Sheng-Shiung)
- 패널리스트 : 静岡산업대학교 학장 大坪 檀 (오오쓰보 마유미)
- 패널리스트 : 조사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중국세계경제학회 이사, 江蘇省 해외교류협회 이사 張紀濤 (조 키징)
- 사설리스트 : 조사이대학교 부학장 渡辺 好章 (와다나베 요시아키)
- 주최리스트 : 조사이단기대학



와다나베 요시아키 부학장



장 제국 교수



黃深勳 교수



張紀濤 교수



오오쓰보 마유미 학장

조사이대학교 설립 40주년, 조사이 베스 컬리지 발족 및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2월 14일 (월)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B1F 홀에서 관계자 분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표기의 심포지엄을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

(1) 문제의식과 테마의 의미

대학교간 글로벌 경쟁의 격화와 구태의연한 대학교 도태의 대혼란기에, 근린 아시아 각국의 대학교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업구조, 인구구성의 변용, 국제정세와 지구 환경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21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심포지엄의 근본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테마의 의미이다.

(2) 패널리스트

패널리스트는 동서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겸 국제협력위원회의 장 제국님, 静岡産業대학교 학장 오오쓰보 마유미 (大坪 檀) 님, 진 대만중대학교 학장 黃深勳 (Huang Sheng-Shiung) 님, 조사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 키징 (張紀濤) 님을 초대했다.

(3) 각국 대학교사정의 현상과 문제점 (전반)

각국에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학교간 과도경쟁에 의한 합병과 도태, 양적확대에 의한 질적저하, 졸업후의 취직난과 불안정성등을 들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선행투자에 합당한 상응의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21세기 대학교간 글로벌경쟁, 인재개발 등 (후반)

21세기 대학교사정의 조류분석과 현실적 대응책에 대해서, 패널리스트에 의한 10개 항목정도의 설명이 있었다. 일본 대학교의 장래에 대해서 총괄하면, 다음의 조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입구대책 (입학시험) 부터 출구대책 (취직알선) 으로 대학교의 과제가 이동한다.
「파는쪽 시장」으로 부터 「사는쪽 시장」에의 수급관계가 역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에서 현저하다. 그렇게 되면, 학생 개인의 니즈에 합당한 「좋은 기업으로의 취업」을 의도하면, 표적시장의 세분화와 커리큘럼의 차별화는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취직에 유리하면, 해외유학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
- 2.교육기회의 글로벌화로 문부과학성의 교육 제도 규제는 유지할 수 없다.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교 편중의 「호송선단방식 : 護送船

JIU의 학생에 의한 과외활동에도 관심이 있어, 차도, 검도, 영화부등의 체험입부도 했다 (여기에서는 아야베 세미나등의 학생들이 통역으로 서포트 해주었다). 학교축제에는 이문화교류연구회의 민족의상쇼에 출연하기도 하고 「필리핀진」에 출전하기도 했다.

또, 국제교육센터 주체의 「주말 홈스테이」에 참가하여 기숙사에서는 맛볼 수 없는 훌륭한 체험을 했다. 그밖에도 애용하고 있던 자전거의 메인터너스로 신세를 진 토가네시 민의 집에서 손으로 만든 메밀면을 대접 받기도 하고, 토가네 산업전에 데려가 주시기도 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환유학생으로 부터의 메세지다.

“We would like to thank the JIU community for giving us a warm welcome and allowing us to experience Japanese culture at its best.”

(「JIU 커뮤니티의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일본문화를 최고의 형태로 체험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비비안 벤틀라



카미르 아바포



로레인 곤자레스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로부터의 교환유학생

금년도 본교 자매교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로부터 교환유학생 1명이 조사이국제대학교에 내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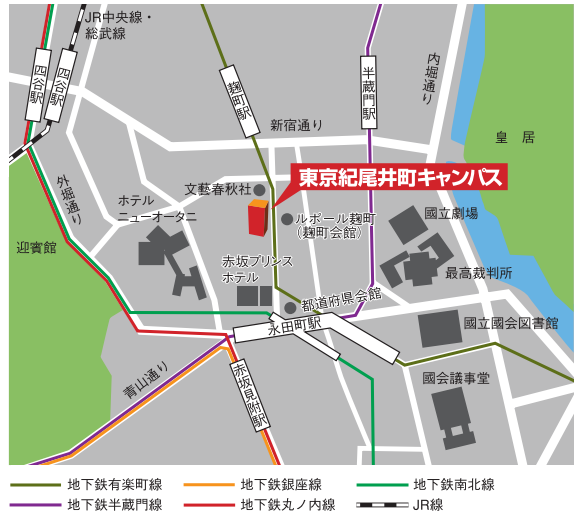
조르지나 페레스 브라포

학생의 이름은, 조르지나 페레스 브라포 (GEOGINA PEREZ BRAVO) 양.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배우는 4학년생이다.

이전부터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그녀도, 처음으로 체험하는 일본에서의 생활에는 무엇인가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벌써 일본의 친구도 몇명인가 생기기 시작해, 순조로운 유학생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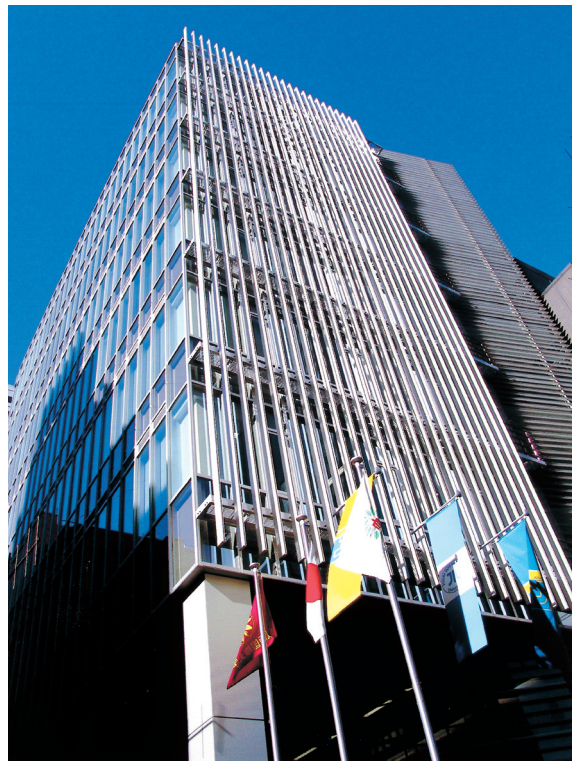
이제부터 일본어를 중심으로한 면학을 계속하면서 2006년 7월말까지 조사이국제대학교에 재학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周辺図



교통안내

- 地下鉄有楽町線 麹町駅 1番出口로부터 도보3분
- 地下鉄南北線・半蔵門線 永田町駅 9番出口로부터 도보5분
- 地下鉄丸の内線・銀座線 赤坂見附駅 弁慶口로부터 도보8분
- JR中央線・総武線 四谷駅로부터 도보10분



學校法人 城西大學



城西大學 / 城西短期大學



城西國際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03 (6238) 1300

學校法人 城西大學 <http://www.josai.jp/>

城西大學 <http://www.josai.ac.jp/> 城西國際大學 <http://www.jiu.ac.jp/>

學校法人 城西大學 國際學術文化振興センター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 03 (6238) 1300 FAX 03 (6238) 1299